

사순절 사경회 소감문

성명	대학지구	캠퍼스	수지 3캠퍼스
소속 목장	위러브 목장	담당교역자	김홍서 전도사

대학지구 부목자, 청소년지구 찬양팀 목양목자 등등 유난히 새롭게 맡겨진 사역이 많은 3월이었습니다. 이 사역들은 제 마음속에 어떠한 결단과 자발적 지원에서 하게 되었다기보다, '필요해보이니까', '해야할 것 같으니까'와 같은 의무감에 의해서 맡게 된 자리였습니다. 목자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고작 나같은 사람이, 어떠한 결단도 없이, 그저 해야될 것 같으니까, 목자라는 자리를 맡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들 속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고통으로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해내야 한다는 압박과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우리들의 생각들 때문이고, 이와 같이 십자가를 그저 고통으로만 잘못 이해하면 종교중독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김병삼 목사님의 말씀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살면서 특별히 잘하거나 뛰어난 것이 없었던 저는 항상 모든 것을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잘 해내야만' 했습니다. 공부, 관계, 신앙 등등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잘 해내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런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그런 것들을 잘 해내지 못하는 한심한 나를 받아들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맡겨진 사역들을 잘 해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맡겨진 십자가(사역)를 잘 해내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나와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마음이었음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러한 마음에서 시작된 사역이 종교중독이 되고, 내 의를 드러내고자 나를 학대하는 것 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맡겨진 사역을 잘 해내기 위해, 나를 학대하고 내가 고통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원하셨고, 그런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길 원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잘 해내야만 할 것 같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 해주시고, 제가 부족함에도 저를 떠나지 않아주시고,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란 나와 더욱 친밀해지길 원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나와 더욱 친밀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더 이상 사역을 잘 해내야한다는 압박과 부담이 아닌, 내 의를 드러내고자 나를 학대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제가 되기를,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